

발목인 제품... 야적장은 '포화'

여수산단 반출입량 평소 8% 수준 수출길 막혀 생산라인 중단 검토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6일 광주·전남지역 주요 물류운송 관문인 광양항과 여수산단 등지의 화물운송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수출업체들은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제품야적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생산라인 중단을 검토하는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양항 운송료 10%대에 머물러 = 1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오를 기준으로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1일 평균 물동량(5천100TEU)의 9.8% 수준인 498TEU에 머물렀다.

반면 19만208TEU의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광양항의 컨테이너 적체율은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12일 30.9%에서 15일 정오를 기준으로 31.4%까지 올랐다.

특히 부산항의 컨테이너 적체율이 88.3%(15일 오전 9시 기준)에 이르면서, 하역을 하지 못한 컨테이너선이 광양항으로 오고 있어, 광양항의 적체율도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수산단의 물류 반출입량은 평소의 8%대에 머물고 있고, 순천산단의 반출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산라인 중단까지 고심 = 삼성전자광주공장은 지난 13일 자정부터 광양항 선적이 불가능해지면서 컨테이너 230대 분량의 수출완제품을 운송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완제품을 쌓아두는 야적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삼성 측은 일부 생산라인 감축을 검

고지로 옮겼다. 광주공장은 지난 14, 15일 내수 및 수출 주문량 공급을 맞추기 위해 과장급 이상 관리자 200여 명을 투입시켜 완성차들을 담당 현대차 야적장과, 광동공단 야적장으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기아차는 목포항으로의 운송이 중단되면서 여전히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캐리어와 한국 알프스, LG이노텍, 화천기공 등 광주지역 주요 기업들도 자체 차량을 동원해 물체 야적장에까지 완제품을 쌓아두고 있다. 대우 측은 현재 생산중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협상선 평행선 = 광양항 컨테이너 동차 광주공장은 공장 내 완성차 주차공간이 한계에 이르자 임직원들을 투입시켜 1천300여대의 완성차를 차

회 운송료 40% 인상, 여수산단 조합원들은 컨테이너 45.5%, 카고 30%, 벌크 32.7% 인상, 순천 조합원들은 4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광주공장 등의 컨테이너를 수송하고 있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와 기아차 운송업체인 글로벌스 분회 등도 30~40%의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산단에서는 14일 화물연대와 입주업체, 운송사 관계자가 모여 '3자대면'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의 경우 수출과 내수차량의 운송단가를 20~30% 올리고, 광주지역 대기업에서는 최초로 '유가연동제'를 도입할 합의했지만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에서 완성차량을 운송하고 돌아오던 5t 카캐리어 차량의 공장진입을 막고 있다. 조합원들은 5t 카캐리어 차량에는 완성차를 3대까지 실을 수 있으나 기아차 측이 4대를 실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차량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안현주기자 ahj@

주말·휴일에도 촛불 이어져

분신 이병렬씨 옛 망월묘역 안장

'6·15 선언' 8주년 기념행사도

주말인 14일과 휴일인 15일 밤에도 광주 시내 등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이어졌다. 또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을 맞아 광주시내 곳곳에서 '6.15km 걷기대회' 등 다양한 6·15 기념행사가 열렸다.

15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 도로에 시민 500명이 모여 '장관 고시 철회' '미국산 쇠고기 제철상 요구'를 외치며 2시간 동안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도 이날 광산구 쌍암공원 일대에서 시민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6.15km 걷기대회'와 '광산구 통일 한마당'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는 시민 300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에서 분신했다가 숨진 고 이병렬씨의 추모식과 함께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추모식이 끝난 뒤 이씨의 유가족과 장례위원회, 광주병위협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시민 등 100명은 북구 운정동 옛 망월 묘역에 이씨의 시신을 안장했다. 다행히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비상시국회의는 16일 금남로 도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6·15 공동선언 실천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불토초등학교와 비아중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공동수업을 할 예정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다중주택·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일 못한다 꾸짖자 칼부림

○바다에서 조업 중인 50대 선원 일일을 못한다고 꾸짖는 선장을 흉기로 찔렀다가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청.

○15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선원 강모(55)씨는 전남 새벽 1시께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남쪽 6.4km 해상에서 어구를 투하하는 조업 도중 선장 박모(59)씨가 "하루 이를 작업한 것도 아닌데 왜 일이 이렇게 서투르냐?"라며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자 격분해 갑판에 있던 흉기로 박씨를 한 차례 찔렀다는 것.

○박씨는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선원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장이 평소에도 일을 못한다고 자주 화를 냈었는데 이날은 막대기로 머리까지 때려 순간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대체 투입 화물차 운송 방해 잇따라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대체 차량으로 투입된 화물차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운송거부 사태가 시작된 13일 이후 전국적으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2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은 15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전남지부 조합원 양모(31)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여수시 여수산단 내 한 주유소 앞에서 화물을 운송 중이던 비조합원 김모(47)씨의 컨테이너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비조합원인 김씨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서도 지난 14일 화물연대 광

주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기아자동차 완성차 운송에 투입된 5t 카캐리어 차량을 막고, 공장출입을 저지했다.

경찰은 이날 물리적으로 차량을 저지한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화물

연대 측의 운송방해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운송방해나 운행 중인 운전사에 대한 위협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조합원들의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동대원과 경찰관들을 파업현장에 배치했다. 또 파업 이후 비조합원들의 화물차량 1천500여대를 에스코트했다.

경찰은 육군 51군수 지원단 트레일러 지원에 따른 운송보호조를 배치하고 경찰관을 광양항 마린센터, 이후 처음으로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취업사기' 피해자 고소 속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한 대규모 취업사기 사건(본보 13일자 8면)과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시내 H다방 주인 선모(36)씨와 광주서부경찰 K모(35) 경장에게 '취업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6년 6월~지난해 말 사이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 조건으로 선씨 등에게 1

인당 현금 3천만~4천500만원을 건넸다"며 "현직 경찰관의 소개로 선씨를 만났으며 K경장을 믿고 선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취업은 커녕 피해만 입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각 경찰서로 분류 접수된 사건을 관할인 광주경찰청으로 넘기고 있다. 또 용의자 선씨 등이 오는 8월 기아차 정문으로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모이라고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기 피해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행 기자 golee@

화물파업 현장 교통사고

여수서 조합원 2명 부상

지난 14일 오후 4시40분께 여수시 화지동 여수국가산단 내 산단주유소 앞에서 정모(39)씨가 운전하던 15t 덤프트럭이 도로변에 세워놓은 화물연대 조합원 강모(41)씨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옆에서 천막을 치고 운송거부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이모(42)씨와 전모(38)씨가 부서진 차량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하다 트레일러를 보지 못했다"는 정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노숙자 처지 비판 30대

1시간 동안 8차례 방화

광양경찰은 지난 14일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1시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축사 등에 불을 지른 김모(39)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밤 11시5분께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서모(50)씨의 축사에 불을 질러 70㎡를 태우는 등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8차례에 걸쳐 인근 축사, 야적된 보리 등에 불을 질러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노숙자 교육시설에서 재활교육을 받으며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www.hanatour.com

무안공항에서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대한항공 KOREAN AIR

대한항공 무안-서울(화) 18:00~19:40

무안-서울(목) 18:00~19:40

대한항공 서울-무안(수,목) 11:00~12:40

대한항공 서울-무안(토) 11:00~12:40

HANATOUR

대한항공이 정품 관광상품

COFFIN

상해/항주/소주 4일

449,000 원 ~ ▶ 제주도

COFFIN

상해/황산/항주 5일

599,000 원 ~ ▶ 제주도

COFFIN

상해/항주/장가계/광주 5일

829,000 원 ~ ▶ 제주도

COFFIN

상해/골프 4일

799,000 원 ~ ▶ 제주도